

# 하이패스 개통으로 통행량 급증 ... MRG 폐기해 부담 줄이기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

## 광주시, 제2순환도로 재협상 왜?



‘혈세 먹는 하마’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3-1구간 민간사업자와 MRG 폐기 협상에 나서면서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송암요금소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투자비 보전방식·비용 보전방식 중 하나로 전환 추진

타 지자체도 협상 진행 중 ... 이해 엇갈려 장기화 우려도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3-1구간 민간사업자와 MRG 폐기 협상에 나선 이유는 해마다 50억~70억원의 재정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제2순환도로가 해마다 막대한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만큼, 광주시는 재정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MRG 폐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2순환도로에 지난 15년간 3059억원 혈세 지원=제2순환도로는 크게 4개 구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2구간(소태IC~학운IC)을 제외한 3개 구간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1구간(두암IC~소태IC)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가 2256억원을 최소 운영수입 보장 협약에 따라 지원했지만 지난해 민간사업자인 맥쿼리 측과 합의해 MRG를 폐지했다. 또 4구간(마륙동~신가동)은 광주시가 MRG 협약에 따라 지난 2007년~2010년 53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줬지만 이후 통행량이 늘면서 비용 보전 부담이 사라졌다. 재협상이 시작된 3-1구간(효덕IC~풍암택지)은 지난 2004년~2016년 750억원의 비용을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 보전해줬다. 이처럼 광주시가 지난 15년간 제2순환도로의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 준 예산만 3059억원에 달한다.

〈협상 결과에 따라 광주시 부담 줄어=광주시의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은 협상 방식과 결과에 따라 광주시의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어서다.

MRG가 적용되는 제2순환도로 3개 구간의 보장 환수율은 협상에 따라 제각각 적용되고 있다. 3-1구간은 목표 통행량의 90%까지는 보장을 해주고, 110%를 달성하면 통행료를 시가 환수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MRG 폐지 대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방식은 기존 주주가 계속 운영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줄여나가는 ‘투자비 보전방식’과 주주를 바꿔나가면서 이익을 지자체와 나누는 ‘비용보전방식’이 있다.

현재 광주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협상태이블에 나설 전망이다.

광주시가 한 해 최대 219억원을 지원했던 1구간의 경우 지난해 MRG를 폐기하고 투자비보전방식으로 전환, 재정부담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올해 1구간 재정부담금은 9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주식을 매매, 새로운 주주와의 협상을 통해 부담을 줄여나가는 비용보전방식은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투자비보전방식은 일시적으로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협상 과정이 길어지고 난항을 겪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상을 마치거나 진행하고 있다”면서 “광주시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사업자들도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가로수 늘어선 시골길 한 폭의 그림 같아



김은영의 '그림 생각'

(199) 원근법



호베마 작 '미델하르니스의 마을길'

벌써 한 주가 지났지만 긴긴 열흘 연휴가 끝났다. 여행과 역귀성을 다녀온 후 여가의 게으름까지 누렸던 날들이다. 역귀성길, 광명에서 송정역까지 내려오는 동안 차창에 펼쳐지던 가을 초입의 황금들녘, 가로수가 늘어선 시골 신작로가 멀리 한 점으로 사라지던 황홀한 풍경에 거듭 감탄했다.

서양미술에서 길게 뻗은 가로수 길을 지평선 상의 소실점으로 사라지게 그릴 수 있게 된 것은 르네상스 건축의 창시자 브루넬레스키(1377~1446)와 ‘회화는 현실의 원근법적 해석’이라는 명제로 유명한 ‘회화론’의 저자 레오 바티스타 알베르티(1404~1472)가 발견한 원근법 덕분이다. 원근법은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이 이전부터 있어왔던 원근법을 재발견하면서 자리 잡았다. 중세의 3인칭 시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주체를 화가 1인칭의 시점으로 정립한 것이다.

따로 멀리서 바라보기에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는 풍경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시달리는 요즘, 사람 사이에서도 적절한 원근법적 거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광주비엔날레광주풀리부장·미술사박사>

브루넬레스키에서 마사초, 알베르티를 거쳐 차근차근 완성되었던 원근법은 결국 세계 회화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그 가운데 네덜란드 출신의 마인데르트 호베마(1638~1709)의 ‘미델하르니스의 마을길’(1689년 작)은 화가의 눈높이가 지평선으로 수렴되는 원근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풍경화로 유명하다.

요즈음의 가을 하늘처럼 푸르른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구름을 배경으로 키 큰 가로수가 길게 뻗어 아득히 먼 곳으로 사라지면서 우리의 시선도 화폭 한 가운데로 모아지게 한다. 화가는 네덜란드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이 이전부터 있어왔던 원근법을 재발견하면서 자리 잡았다. 중세의 3인칭 시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주체를 화가 1인칭의 시점으로 정립한 것이다.

따로 멀리서 바라보기에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는 풍경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시달리는 요즘, 사람 사이에서도 적절한 원근법적 거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광주비엔날레광주풀리부장·미술사박사>

# 일자리 질 높이고 혁신기업 창업 지원

文정부 일자리 정책 로드맵 제시 ...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100개 세부과제 추진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 2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이를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5년에 걸쳐 추진할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밝혔다.

특히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창업할 때 사업실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7년 이상 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사실상 폐지하고, 민간금융에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한다.

혁신형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

학교수의 창업휴직 기간을 늘리고 대학평가 때 창업실적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창업 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출도산을 낚는 약속 어음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투자·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입찰 시 가점을 늘려주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에도 나선다.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족방역 등 지방직 7만4천명 등 현장 민생 공무원을 17만4천명 총원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명의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총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화순군  
HWASUN COUNTY

10.27-11.12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



2017  
화순  
국화  
향연